

일본, 2008년 수산예산 2,423억 1,000만엔

“신 경영안정화대책에 52억엔” 투입

일본의 2008년도 수산예산은 전년대비 3% 감소한 2,423억 1,000만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비공공 부분이 977억 1,100만엔(전년대비 103.2%), 공공부분이 1,451억 9,900만엔(전년대비 93.2%)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부터 시작된 「어선어업 구조개혁 종합대책사업」에 50억엔, 현행 어업공제를 강화, 어업경영을 안정화하는 「어업경영안정화 대책사업」에 52억 600만엔 등이 각각 책정되었다.

수산청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50억엔 규모의 굴직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2007년도 보정에는 100억엔이 넘는 연료대책기금도 결정되어 착실히 실행하여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08년도 수산예산은 ①수산자원의 회복·관리추진 ②국제경쟁력이 있는 경영체의 육성·확보와 활력 있는 어업취업구조의 확립 ③가공·유통·소비대책과 미래를 열어갈 신기술의 개발 ④어항·어장·어촌의 종합적 정비, 다면적 기능의 발현 등에 할애된다.

주요사업을 보면 관심을 끄는 어선어업 구조개혁 종합대책사업, 어업경영 안정화 대책사업 이외에도 지역어업의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지역어업 리더확보·육성추진대책사업」(3억 8,200만엔)과 수산교생의 기업실습 등을 지원하는 사업(1억 300만엔)이 신규로 계상되었다. 그 이외에도 가다랑어류의 신규 대체어장조사(1억 6,300만엔) 등 가다랑어류 인공종묘의 신규양식 기술개발 등도 새로이 추가되었다.

어협관련대책으로 어협의 결손금 처리 대책인 어협경영개혁 지원사업(9,900만엔)이 계상되었다. 어항·어장·어촌관계에서는 국가직할정비사업에 의한 어장조성 착공에 관한 프론티어 어장정비사업(4억엔)을 확보, 지속사업인 낙도어업 재생 지원교부금은 약 2억엔이 삭감된 14억

5,100만엔으로 사업실시에 필요한 금액이 확보되었다.

또한 2008년도 조직·정원요구에는 외국어선의 단속체제강화로 2명을 증원하

는 것 이외에 업무개혁의 일환으로서 각과 총괄과 총무반의 통합, 어정과내의 조직 재검토, 1반 1계 조직에 대한 타반과의 통합 등이 결정되었다.

(2008 일본 수산예산)

(단위 : 억엔)

사 항	2007년도	2008년도	전년대비 (%)
일반회계	249,926	242,310	97.0
비공공	94,133	97,111	103.2
공공	155,793	145,199	93.2
일반공공	154,680	144,086	93.2
수산기반정비	144,148	133,937	92.9
어항해안	10,532	10,149	96.4
재해복구	1,113	1,113	100.0

일본 JF 전어련, 연료상승대책 추진본부 및 대책팀 설치

순환휴어제 및 소에너지화사업, 신형조업형태전환 등을 지원

일본 JF 전어련은 지난 1월 10일자로 연료상승대책 추진본부 및 대책팀을 설치했다. 이 조직은 수산청의 보정 예산을 지원받아 대일본 수산회에 설치된 연료대책 신기금(101억 5,000만엔)등을 기반으로 어업자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지원을 비롯해 어선어업 구조개혁 프로젝트의 소규모 형태로 실시한다.

추진본부장을 맡은 JF 전어련 미야하라(宮原) 전무는 「이후 수산청과의 연대를

통해서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어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연료상승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에는 각 도도부현의 어련에도 대책팀을 설치하여 지역과의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